

# 극단 치닫는 당내 갈등에 극약 처방 ... 내홍 해소 미지수

## 새정치 문재인, 재신임 투표 제안 왜?

### 대표직 사퇴 목소리 '이제 그만'

### "당 흔들기 말라" 비주류에 경고

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대표직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제안한 것은 현재 당의 분란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. 문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재신임 투표를 제안하면서, 재신임 투표가 부결되거나 당 혁신안이 최종 통과되지 못할 경우 대표직을 내려 놓겠다고 밝혔다.

◇배경=문 대표의 기자회견 직전 새정치연합은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를 잇따라 열어 당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공천혁신안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. 당무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공천단·결선투표제·가산점제 등 공천제도 변경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혁신위 안을 수용했다.

이에 앞서 열린 혁신안의 당무위 상정을 위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종걸 원내대표, 주승용·유승희 최고위원이 추가 검토 필요성을 들어 상정 보류를 요구했으나 문 대표가 "다수 의견"이라며 상정을 강행했다. 이날 진통이 있었지만 당 혁신안이 최고위와 당무위를 통과했고 오는 16일 중앙위원회 통과도 유력하다는 게 당내의 일반적 전망이다.

하지만, 문 대표 입장에서 이를 확고히 다짐할

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'재신임 카드'로 중앙위 통과를 확고히 했다는 분석이다.

또 범진노계인 정세균 상임고문까지 나서 '살신성인'을 요구하는 등 대표직 사퇴 목소리가 계속되는 한 혁신안이 중앙위를 통과하더라도 당의 분열과 갈등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비주류 반발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배수진을 친 것으로 해석된다. 문 대표는 나아가 자신을 흔들는 비주류 인사들에 대해서는 경고성 메시지까지 보냈다.

그는 "최근 당 안에서 공공연히 당을 흔들고 당을 깨려는 시도가 금도를 넘었다"며 "저는 오로지 단결과 단합을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했고, 포용하고 또 포용했으며, '신당', '분당'을 함부로 얘기하는 분들을 조차 끌어안으려 노력했지만, 개인의 정치적 입지나 계산 때문에, 또는 계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끊임없이 탈당과 분당, 신당 얘기를 하면서 당을 흔들는 것은 심각한 해당행위"라고 비판했다. 이어 "이런 상황을 더 방치하면 당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. 인내와 포용도, 최소한의 기강이 전제될 때 단결의 원천이 되며 기강과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공멸"이라고 강조했다.

◇전망=문 대표가 스스로 재신임 투표를 거론한 이상 재신임 투표 방법을 둘러싼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. 문 대표는 이날 회견 후 일본일대에서 재신임 방식과 관련, "앞으로 생각해 보겠다"면서도 "지난번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를 결정했을 때 취했던 것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



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오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.

연남뉴스

다"고 밝혔다. 기초선거 공천 여부를 결정할 당시엔 전(全)당원투표 및 국민여론조사를 50%씩 비율로 나눠 실시한 바 있다.

하지만, 혁신안이 중앙위를 통과하고 재신임 투표가 실시돼 문 대표가 재신임을 받는다 해도 당 분

란이 가라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. 당장 비노(비노무현)계 등 비주류 측에서는 이날 문 대표의 회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.

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"실망스럽다. 재신임은 완전히 혁신의 본질을 비껴가고 있는 것이다"고 비판

했다. 최원식 의원은 "최고위 회나 당무위 때 의견이 분분했는데 급하게 통과시키고는 '이것(혁신안 통과)이 아니면 나는 나가겠다'고 하는 것이 민주적이지 않다"며 "반대파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냐"고 꼬집었다. / 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## 정세균 "文 살신성인 필요" ... 연석회의 제안

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상임고문은 9일 "문재인 대표 등 지도부가 아권 전체의 단결과 통합, 혁신의 대전환을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대결단을 해줄 것을 호소한다"고 밝혔다. 정 고문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"일찍이 이런 야당의 역사는 없었다. 죽느냐 사느냐 결단 없이는 우리 당은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짊어질 수 없다는 절박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다"며 이 같이 말했다.

그는 또 회견문에서 당의 모든 구성원이 갈등과

분열의 연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 뒤 새정치연합 안팎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'2017년 정권 교체'를 위한 연석회의의 구성을 제안했다.

정 고문은 "당의 원로, 3선 이상 중진, 전·현직 지도부, 혁신위가 모두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즉시 소집해 끝장토론으로 당의 진로를 결정하자"며 "여기에는 천정배 의원, 정동영 전 대표 등 당 밖의 주요 인사들도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"고 말했다.

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## 안철수-천정배 회동 '야권 새판짜기' 힘 합치나

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와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9일 전격 회동, 주목받고 있다. 이날 만남은 안 전 대표가 최근 "혁신은 실패했다"며 혁신위와 문재인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린 와중에 이뤄진 것이어서 야권의 '새판짜기'와 관련해 주목된다.

두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40분 가량 국회 의원회관의 안 전 대표 방에서 배석자 없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.

안 전 대표와 천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호남 민심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, 현재의 혁신 작업으로는 호남 민심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. 특히,

안 전 대표는 천 의원에게 "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서 천 의원의 역할이 있다.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함께 해야 한다"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. 반면, 천 의원은 "새정치연합이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. 자체적 혁신도 어렵고 혁신으로 살아나기 어렵다고 봤다"며 "새로운 판을 짤 수밖에 없다"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. 이날 회동은 천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새정치연합의 당내 상황에 따라 안 전 의원이 어떠한 행보를 보일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. 정치권에서는 문 대표 등 현재 주류 체제에서는 정치적 미래가 없는 만큼 안 전 대표가 사실상 분당의 수순을 밟아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. /임동욱기자 tuim@kwangju.co.kr

**초특가 일본여행**

**무안(광주) ↔ 기타큐슈 직항**

**2015년 10월 9일(금) ~ 12월 28일(월)**

패턴 : 매주 목(2박3일) / 토(2박3일) 출발

스케줄 : 무안(05:00) → 기타큐슈(06:10), 기타큐슈(01:50) → 무안(02:50)

항공기 : 8스타플라이어항공 / 기종 : A320-200 / 좌석 : 150석

**비행기로**

**(목) 399,000원에 간다!~**

(선착순 30명 한정)

## 고국으로 돌아오지만 ... 내미는 손 잡아줄 이 누구?



(126) 난민

파도에 실려 터키의 바닷가로 떠밀려온 세상 시리아 난민 꼬마의 사진 한 장이 온 세상을 울리더니 그 '올림'의 파장이 널리 퍼지고 있다. 어린 꼬마 한 명이 타인의 삶에 무심했던 우리를 일깨우고, 사람들의 인도주의를 눈뜨게 한 것이다.

최근 미술에서도 난민 문제는 중요한 이슈다. 올 봄에 개막한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 국가관 황금사자상 수상작도 20세기 첫 대학살이었던 아르메니아의 비극을 담은 아르메니아관이 받았고, 지난 5월 문을 연 제14회 이스탄불 비엔날레도 전쟁, 인종 청소, 터키와 아르메니아, 시리아 난민 등 역사적인 매듭들을 언급한 다수의 전시들로 뜨겁다.

제주 출신으로 어린 시절 일본으로 건너가 제일 조선인으로서 받아들인 차별과 멸시, 이데올로기 대립과 가난 등 처절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미술인 송영욱(1917~1999)도 오래 전 작품을 통해 디아스포라의 신산함을 증명했다. 작품 '갈림(귀국선)'(1969년 작)은 분명 고국으로 귀향하는 '귀국선'이건만 반겨 맞이할



송영욱 작 '갈림(귀국선)'(1969년 작)

이 없는 디아스포라의 안식 없는 삶을 묘사하고 있어서 지중해를 떠도는 난민선의 이미지와 겹쳐진다.

어디쯤 왔을까? 선창으로 내다보는 처연한 눈길. 내미는 손을 잡아줄 구원의 손길은 과연 있는 걸까? 사다리마저 부서져 극한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한 줄기 희망도 사라져버린 듯하다.

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목숨을 걸고 정든 땅을 탈출하는 이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. 난민뿐만 아니라 동남아 노동자, 이주민, 고려인 등 더 나은 삶을 찾아 우리 곁에 와 있는 이들의 공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듯하다.

〈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·미술사 박사〉

## 기타큐슈 편도 항공권 69,900원~

(TAX, 유류세 별도) [매회 선착순 5명 한정]

기타큐슈/야마구치/미야지마 3일 [선착순 30명 한정]  
(목) 459,000원 (토) 549,000원

기타큐슈 올레길(가라츠+히라오다이 트레킹) 3일  
(목) 529,000원 (토) 629,000원

큐슈 정통(기타큐슈/벳부/유후인/후쿠오카) 초특가 4일 [선착순 30명 한정]  
(월) 549,000원

골프 야마구치 조요C.C/아사C.C 3일(36홀)/4일(54홀)  
(월)(목)(토) 799,000원~

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 
**조이투어**  
JOY TOUR CO.,LTD  
http://www.joytour.kr

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!!  
**NAVER** 조이투어 검색  
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-1번지 1층  
Tel. (062) 234-3222  
Fax. (062) 234-3141



대표이사 최금환